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후 개념에 대한 암시적 타당화

Implicit Validation of the Concept of Successful Aging for Korean Elderly

주민경, 송선희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노인복지학과

Min-Kyoung Joo(joomin386@hanmail.net), Sun-Hee Song(shsong@hoseo.edu)

요약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의 한국노인을 대상으로 노후 개념의 원형적 요인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원형의 개념 추출을 위해 511명을 대상으로 무선 표집하여 90문항의 2차 예비척도 문항 개발하였고, 2차 552명을 대상으로 구성요인 확인, 3차 399명을 대상으로 구성타당도, 그리고 공인타당도, 성공적 노후척도와 성별, 연령, 학력에 따른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는 총 47문항으로 ‘일상적 삶의 순조로움’, ‘자녀성공’, ‘경제적 안정’, ‘심리적 지지’, ‘적극적 활동’, ‘부부관계만족’, ‘가족 지지’와 같은 7개의 요인으로 구성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의 신뢰도는 .932로 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였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과 문항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여 요인구조에 대한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 중심어 : | 성공적 노후 | 암시적 타당화 | 한국노인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what basic factors of aging for korean elderly(above 65years old). First of all, 90 preliminary questions were developed from 551 questionnaires. In addition, some practices of the composition factors were carried out from another 552 seniors and additional tests were tried for composition validity, certified validity and successful aging standards from other 399 elders.

The survey showed that the standard of the successful aging for korean elderly, which was composed of 47 questions, displayed satisfaction of everyday life, off-spring's success, psychological support, positive activity. sense of self effectiveness, mental stability, satisfaction of spousal relationship and family support.

The reliability of the Validation of Successful Aging for Korean Elderly showed high internal consistency of 0.932. It is also verifi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s and the questions has statistically meaningful, which makes it possible to confirm the reliability of the structure of the factors.

■ keyword : | Successful Aging | Implicit Validation | Korean Elderly |

1. 서 론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로 개인은

물론 가족이나 사회에서 노인들의 성공적 노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신문지상이나 뉴스에서 가장 많이 소개되고 이슈로 다루고 있는 문제가 바로 노인문제이다.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 기

술의 발달로 인해 노인들의 평균수명 늘어남에 따라 노인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노인의 수적인 변화 뿐 아니라 이전에 의존적이고 만성적 질병을 가진 부정적인 노인의 모습이 아닌 보다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자신의 삶에 잘 대처하는 긍정적인 모습으로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1].

노년기에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노인들에게만 국한된 관심사가 아니고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한국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다. 노인인구에 대한 한국사회에 접근은 아직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방적인 차원보다는 발생하는 노인문제를 치료적인 차원에서 대처하는데 급급하다. 이로 인해 노인들은 소극적이고 의존적인 삶에 안주하도록 요구 받고 있으며 높은 삶의 질을 보장받기 위한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2]. 또한 높은 경제력과 교육수준을 갖춘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를 독립적이며 생산적인 삶이 가능한 시기로 인식하게 되었다. 즉 길어진 노년기를 보다 역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전하고자 하는 시각에 발맞추어 노인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변화를 일으켜 행복한 노후생활을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움직임이 본격화 되었고, 또한 연륜과 노련미, 성숙과 활력, 지혜와 삶에 대한 만족은 노후의 또 다른 다양성인 성장과 발달 측면으로 대두 되었다[3].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는 개인의 생애 주기에서 노년기의 확장, 연장으로 이어지는데, 이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에서도 노화(aging)에 대한 새로운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국내외의 여러 학자들이 노년기의 삶의 질이나 성공적 노후에 관한 개념을 연구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밝히고 있다. 각 연구자 마다 성공적 노후의 개념을 생물학적, 전생애주기적, 심리학적 측면 등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노인들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빈곤, 질병, 고독, 무위의 사중고(四重苦)를 노인의 중요한 문제로 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해 왔다. 그 결과 노인에 대한 인식자체가 지나치게 부정적이어서 노인은 병약하고 무기력하며 부

담이 되는 존재로서 부각되어 왔다.

최근에는 노년기를 쇠퇴의 시기가 아닌 지속적인 발달과정으로 새로운 창조적 시기로 보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노인층은 향상된 교육수준과 젊은 세대와의 격차 감소로 자신의 노후를 안락하고 풍요롭게 가꾸고 싶어 하는 욕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노후에 대한 인식은 이처럼 긍정적으로 인식되지 못하다가 노인 집단의 양적 증가 뿐 아니라 과거보다 교육수준과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면서 보다 높은 삶의 질의 향상과 성공적인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증가했으며[4],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차원에서의 노인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외국의 경우 1986년 세계노년학회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성공적 노후'에 대한 연구가 1990년대부터 다양하게 진행 되어 왔다. 특히 성공적 노후의 6가지 차원을 제시한 Ryff[5]는 성공적 노후를 단일 요소인 주관적 안녕감으로 측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6가지의 심리적 안녕감의 요소, 즉, 자기수용,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자율성, 환경의 지배,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들을 골고루 잘 이루는 것이 성공적 노후라고 보았다.

Ford[6]등은 삶의 변화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강조한 Baltes와 Baltes[7]의 '보상을 수반한 선택적 적정화 모델', 그리고 Rowe와 Kahn[8]의 '적극적 사회 참여 모델' 등이 성공적 노후의 대표적 모델이라고 하였다[9]. 현재까지 국내외 연구들은 한국노인을 대상으로 성공적 노후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10-12]와 성공적 노후의 구성요인[13-19]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었다[20]. '성공적 노후'란 단순히 행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공적 노후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성공적 노후는 객관적으로 주어진 상태가 아니라 주관적으로 '개인의 선택과 행동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다[21].

성공적인 노후를 지원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성공적인 노후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만 성공적 노후를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도구의 개발은 소수에 불과하다. 국내에서 성공적 노후를 다룬 논문들이 대부분 Baltes, Baltes, Freund 와 Lang[22]이 개발하고 안지연이 번역한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SOC) 척도 하정연·오윤자[24]나, Rowe와 Kahn[8]의 성공적 노후의 이론적 틀을 사용하여 연구자가 수정한 척도[17]를 연구내용에 맞게 수정하거나, 외국의 성공적 노후 척도나 성공적 노후의 구성요인들을 측정하는 척도를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맞게 번역하거나 내용을 수정하여 간단한 타당도 검사만 거쳐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성공적 노후라는 개념은 문화와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연구된 성공적 노후의 준거의 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현재 사회과학 분야에서 측정 도구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설문지이며 이 설문지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25]. 첫째, 국내 선행연구에서 외국 설문지를 번역한 것 중 일부 문항만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경우; 둘째, 번역된 외국 설문지와 국내 설문지를 취합해서 문항을 수정 보완하는 경우; 셋째, 외국의 설문지와 국내의 설문지의 유사한 내용을 취합하여 발췌하고, 자체적으로 문항을 개발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외국의 설문을 번역하여 사용 할 경우 그 설문지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개발되었는지 등과 같은 개발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 하여야 하며, 관련 분야의 연구에서 적용되어 적절하다고 판정되는 것인지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25]. 왜냐하면 설문지를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우 문화적 요인, 환경적 요인, 번역의 오류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번역한 설문지를 이용한 자료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성공적으로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요인들이 무엇인지 밝혀내려는 구체적인 노력들로 성공적 노후의 개념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적 관점에서 현재 노인들이 인식하는 성공적 노후가 과연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10][26-28]가 일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성공적 노후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성공적 노후의 구성요소에 초점을 두고 성공적 노후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의미만을 언급했을 뿐, 그 요소들이 원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즉 노인들의 성공적 노후에 내포된 주

관적인 측면을 충분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 개인의 행동에 대한 맥락 및 사회적 영향, 물리적 환경, 문화가 노인들의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4단계로 진행이 되었다. 첫 단계는 ‘문항 개발’로 한국노인들의 성공적 노후의 원형적 개념을 찾기 위해 개방형 설문을 이용하여 예비문항을 만들었고, 두 번째 단계는 1차 개방형 설문에서 얻어진 문항을 검토하여 2차 설문지를 제작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2차 설문에서 얻어진 ‘성공적 노후 척도’에 대한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3차에서 조사를 통해 ‘성공적 노후 척도’에 대한 신뢰도, 내적 타당도, 외적타당도를 검증하였고,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았다.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에 대한 타당성 확보는 노인들의 원형적 조사에 의한 문항 분석 및 통계적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포함 한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국내연구에서 성공적 노후척도를 사용하는 후속 연구자들에게 보다 타당한 연구를 수행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한국 노인들이 지각하고 있는 성공적 노후를 노인들의 실정과 상황에 맞는 건강한 노후 척도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우리나라 노인의 노후 개념의 원형적 요인들은 무엇인가?
- 둘째, 성공적 노후 척도에서 요인들은 내적으로 타당한가?
- 셋째, 성공적 노후 척도에서 요인들은 외적으로 타당한가?
- 넷째, 성공적 노후 척도는 성별, 연령,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1차 예비연구

1.1 연구 도구

성공적 노후 개념의 원형적 요인의 추출을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의 구성은 개방형 설문으로 '어르신은 성공적 노후(잘 사는 것)를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라는 형태의 설문이다.

1.2 연구 대상

1차 연구는 2011년 7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총 511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서초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65명,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길음 사회복지관 65명, 충남 천안시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122명, 청주시에 있는 경로당 259명을 대상으로 노인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다음 개방형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노인들의 특성상 1:1면접을 하여 노인들의 생각을 본 연구자가 받아 적었다. 설문의 작성 시간은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1.3 문항 분석 결과 및 문항 수정

1차 개방형 설문을 통해 얻어진 문항들을 토대로 내용 타당도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126개의 문항을 내용 분석(contents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내용분석은 범주화를 통해 잠재변인 범주를 추출하는 방식인데, 그 방식을 간략히 정리하면 먼저, 동일한 단어를 중심으로 1차로 묶어 탐색내용을 유목화 하였다. 노인들의 개방형 보고식으로 설문을 하여서 객관적인 설문보다 유사하거나 중복된 문항이 많았다. 그 중에서 중복되었거나 유사한 문항을 제거하고 분석하여 2차로 탐색 내용을 유목화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 분석 과정에는 2명의 노인복지전공 교수님이 참석하였으며, 이들은 우선 개별적으로 기록된 자료를 유목화 하여, 90개의 2차 설문 문항을 추출하였다.

2. 2차 예비 연구

2.1 연구 도구

선행 연구에서 개발된 예비문항들을 가지고 실제 현장에 적용시켜 한국노인들이 건강한 노후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1차에서 얻어진 90개의 문항을 가지고 2차 설문을 실시하였다. 문항의 작성기준은 1차 개방형 설문 표현내용을 토대로 문항을 작성하

였으며, 7점 리커트 척도화로 구성되어 있다.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7개 범주를 주고 본인이 해당하는 곳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매우 그렇다'는 7점, '보통이다'는 3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점수화 하였다.

2.2 연구 대상

2차 설문 조사는 2011년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일대일 면접 조사와 노인에 의한 자기보고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지역은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로 분류 하였고, 대도시로는 서울특별시 강동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110부, 강북 길음 사회복지관의 노인 110부, 중소도시 대전의 보문산 공원에서 70부, 동탄 신도시 아파트의 경로당에서 70부, 천안시 노인복지관 110부, 소도시 충남 아산시 노인복지관 100부 총 570부 중 무응답이거나 설문 응답이 불성실 한 경우에 해당하는 18부를 제외한 552부를 분석하였다.

2.3 연구절차 및 자료 처리

2차 설문에서 얻은 552명의 노인 응답을 토대로 SPSS WIN 12.0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축분해법을 이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고, 보다 단순한 구조를 얻기 위해 varimax 직각회전을 한 후, scree plot을 고려하여 아이겐 값이 1이상에서 요인수를 결정하였다. 문항 변별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공적 노후 척도 총합과 각 항목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모든 항목들이 유의 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상관계수가 .4미만으로 비교적 낮은 상관을 보이는 9번($r=.39$)문항, 18번($r=.29$)문항, 20번($r=.36$)문항, 24번($r=.38$)문항, 35번($r=.35$)문항, 43번($r=.35$)문항, 47번($r=.37$)문항, 52번($r=.29$)문항은 제거하였다. 그 외 상관계수가 $r=.4$ 이상이라도 전체 문항에 대해 문항이 중복되어진 경우, 문항이 이중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해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항의 중요도가 낮은 경우 등을 고려하여 선별하는 작업을 거쳤는데, 그 결과 38문항이 제거된 총 52개의 문항이 최종 선별되었다. 1요인에서 문항이 유사하거나 두 문장이 같은 내용

일 경우 예를 들어 ‘자유롭게 사는 것’, ‘시간적 여유를 즐기는 것’, 이 두 문장은 ‘여유롭게 취미생활을 하면서 사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것’은 ‘경제적으로 자식한테 부담 안주는 것’으로, ‘함께 놀아 줄 친구가 있는 것’, ‘이웃과 여유를 즐기는 것’은 ‘취미가 같은 동료들 만나는 것’으로 이상 10개의 문항으로 6문항을 제거하였다. 2 요인에서는 ‘즐겁게 사는 것’, ‘가정이 화목한 것’, ‘가족이 건강한 것’, ‘가족이 행복한 것’ 4 문항은 의미가 중복되어 있어 ‘가족이 즐겁고 행복한 것’이라고 수정하였다. 그리고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사는 것’, 과 ‘남의 도움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격정 근심이 없이 사는 것’으로 수정하고 6문항을 제거하고 10개의 문항으로 완성하였다. 3요인에서는 의미가 유사한 ‘자녀가 취업을 잘하는 것’, ‘자녀들의 경제적 안녕’, ‘자손이 잘 되었을 때’를 ‘자녀가 취업 잘해 경제적으로 안정 된 것’이라는 한 문항으로 하고 4문항을 제거하였다. 4요인에서는 ‘자식과 함께 사는 것’, ‘가족의 돌봄을 받는 것’,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을 ‘가족과 함께 살며, 가족의 돌봄을 받는 것’으로 수정하고 ‘원하는 사회활동 하는 것’,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는 것’으로 수정하고 10문항을 제거하였다. 그 결과 52개의 문항으로 7개의 요인으로 묶였다.

III. 연구 결과(본검사)

1. 연구 대상

본 연구를 목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어 각 80부씩 160부의 설문을 실시하였다. 중소도시로는 대전광역시 50부, 천안시 50부, 수원시 50부를 표집대상으로 하였고, 소도시로는 아산시 50부, 예산시 50부를 표집대상으로 하여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및 가구 방문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시키고 조사에 참여 할 의사가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총 410부의 설문지를 유의표집 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410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1부를 제외한 399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399명의 조사대상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가 40.3%, 여자가 59.7%였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초등학교졸업 29.9%, 중학교, 중졸과 고졸이 52.1% 그리고 대졸이상이 18%이었다. 연령은 65세 이상 70세 미만 52.4%, 70세 이상 75세 미만 33.7%, 75세 이상 80세 이상 14% 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별, 학력수준 분포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배경(n=399)

특 성	항 목	빈 도(명)	%
성별	남	159	0.3
	여	240	59.7
연령	5-69	207	52.4
	70-74	133	33.7
	75세이상	55	14
교육 수준	초등 졸	118	29.9
	중 졸	117	29.6
	고 졸	89	22.5
	대졸이상	71	18
합 계		399	100

2. 연구 도구

내용 타당도 검증에 사용된 설문지는 성공적 노후의 암시적 타당화 연구를 위한 2차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로 구조화된 설문 문항이다. 이 설문은 문항을 중심으로 본 연구인 3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문항 측정 은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의 5개 반응 선택의 폭을 주고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점수화 하도록 하였다. 노인들이 직접 작성하는 자기보고식 검사로 5점 Likert 척도로 되어있다.

3.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개념의 원형적 요인

한국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후개념의 원형적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노인들의 성공적 노후 척도 47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 (Kaiser-Meyer-Olkin Measure)는 .918, Bartlett의 구형검증 결과 $p < .001$ 로 수집된 자료가 요인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분석을 통해 나타난 하위 요인들의 적절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각 하위 영역

들과 문항 전체의 합과의 상관 그리고 하위 내용 영역 간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성공적 노후 요인 부하량

구분	문항내용	부하량	고유치	설명 변량	누적 변량
일상적 삶의 순조로움	자녀와 주변인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678	13.949	29.048	29.048
	건강을 유지하며 계속 활동 하는 것	.670			
	거주 할 안정적인 집이 있는 것	.662			
	가족이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	.625			
	자손이 잘 되는 것	.621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	.619			
	걱정 근심 없이 사는 것	.615			
	자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것	.474			
	자식들이 건강한 것	.416			
자녀성공	아들딸이 잘 자라 준 것	.788	3.957	8.245	37.293
	자손이 건강 한 것	.753			
	자손들이 정상적으로 잘 사는 것	.731			
	자손들이 정상적으로 잘 사는 것	.655			
	자녀가 모두 취업 잘해 경제적으로 안정된 것	.620			
	손자 손녀가 잘 성장하는 것	.515			
	자녀가 건강하고 아프지 않는 것	.459			
	자녀 모두 출가 시키는 것	.458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	.739			
경제적 안정	하고 싶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가능한 것	.718	2.706	5.638	42.930
	먹고사는 것에 제한을 받지 않고 사는 것	.707			
	기본적인 욕구 해결과 편안함을 유지 하는 것	.680			
	경제적으로 자식한테 부담주지 않는 것	.652			
	생활비 걱정 안하는 것	.650			
	남에게 경제적으로 베풀며 사는 것	.573			
	여유를 갖고 취미생활을 하면서 자유롭게 즐기며 사는 것	.705			
심리적 지지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것	.654	2.142	4.463	47.393
	취미가 같은 동료와 여유를 즐기는 것	.627			
	편안하게 죽는 것	.608			
	형제들과 잘 지내는 것	.593			
	가족간 서로 의지하는 것	.562			
	아프지 않고 젊어지는 것	.532			
	평온한 심리상태를 가지고 성실하게 사는 것	.517			

적극적 활동	일을 통해서 자아성취를 하는 것	.806	2.090	4.353	51.746
	계속 무언가를 배우면서 사는 것	.796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것	.765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것	.709			
	바른 사고와 바른 행동을 하는 것	.609			
	남을 배려하면서 사는 것	.556			
부부관계 만족	부부가 건강하여 다정히 식사하는 것	.802	1.577	3.286	55.033
	부부가 건강하여 행복하게 사는 것	.764			
	부부가 서로 의지하고 사는 것	.726			
	외출 후 돌아오면 배우자가 반겨주는 것	.716			
	부부가 건강하여 다 오래오래 사는 것	.697			
	자녀들이 여행 많이 시켜주고 맛있는 것 많이 사 주는 것	.765			
가족 지지	자손(손자 손녀)돌보는 것	.678	1.408	2.934	57.966
	자녀가 많은 것	.630			
	가족과 함께 살며 가족의 돌봄을 받는 것	.569			

4. 성공적 노후 요인 및 문항번호

탐색적 요인 분석에 나타난 7요인을 가지고 문항 내용을 검토한 후 요인 명을 명명하였다. 그 결과 1요인은 ‘일상적 삶의 순조로움’, 2요인 ‘자녀성공’, 3요인 경제적 안정, 4요인 ‘심리적 지지’, 5요인 ‘적극적 활동’, 6요인 ‘부부 관계만족’, 7요인 ‘가족 지지’이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각 요인에 따른 요인 명을 부여하여 성공적 노후 하위 척도의 하위요인을 설정 하였다. 설정된 성공적 노후의 하위요인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성공적 노후 요인 및 문항 번호

요인명	문항 수	문항번호	
요인 1	일상적 삶의 순조로움	9	14, 18, 11, 12, 15, 17, 16, 8, 9
요인2	자녀 성공	8	24, 23, 25, 22, 26, 21, 19, 20
요인 3	경제적 안정	7	43, 41, 42, 44, 45, 39, 40
요인 4	심리적 지지	8	3, 5, 1, 2, 4, 6, 7, 10
요인 5	저극적 활동	6	52, 49, 50, 51, 48, 47
요인 6	부부관계 만족	5	35, 36, 34, 38, 37,
요인 7	가족 지지	4	29, 28, 32, 27

5. 성공적 노후 요인들 간의 상관 분석

성공적인 노후 척도에서 요인들은 내적으로 타당한가를 평가하기 위해, 각 하위 영역과 문항의 전체의 합과의 상관, 그리고 하위 내용 영역간의 상관분석을 하였다. $r=.40$ 이상인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노인들의 성공적 노후 척도 전체의 점수와 각 하위요인 간에는 $r=.271\sim.825$ 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일상적 삶의 순조로움은 자녀 성공 및 지지(.688)와 경제적 안정(.515), 심리적 지지(.629), 부부관계 만족(.529)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자녀성공은 경제적 안정(.570) 및 심리적 지지(.476), 부부관계 만족(.587)과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안정은 심리적 지지(.450)과 부부관계 만족(.514)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적극적 활동은 부부관계 만족(.401)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각각의 하위요인들이 독립된 요인으로 구분되는 동시에 서로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각 하위요인들의 점수를 통해 노인들의 성공적 노후척도 전체를 잘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노인들의 성공적 노후 척도 7개 하위 요인간의 상호상관계수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성공적 노후 하위요인간의 상관분석 결과

(n=399)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전체합
일상적 삶의 순조로움	1							
자녀성공 및 지지	.688 (**)	1						
경제적 안정	.515 (**)	.570 (**)	1					
심리적 지fit	.629 (**)	.476 (**)	.450 (**)	1				
적극적 활동	.279 (**)	.262 (**)	.392 (**)	.261 (**)	1			
부부관계 만족	.529 (**)	.587 (**)	.514 (**)	.401 (**)	.135 (**)	1		
가족 지지	.086	.004	.067	.079	.224 (**)	.047	1	
전체 합	.825 (**)	.787 (**)	.773 (**)	.728 (**)	.548 (**)	.683 (**)	.271 (**)	1

*** $p<.001$

6. 성공적 노후 요인들의 외적 타당화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의 외적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성공적 노후의 개념과 유사한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를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한국노인들의 성공적 노후 척도 점수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한국노인들의 성공적 노후 척도는 노년기를 평가하는 가장 범용적인 척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성공적 노후의 개념이 가장 많이 포함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공인타당도 검증 척도로 선택하였다. 그 결과 [표 5]와 같이 일상적 순조로움과 자기완성지향 간에 일상적 삶의 순조로움과 ‘한국노인들의 성공적 노후 척도’ 6 요인과는 정적상관이 보이지 않았고 자녀성공과 자기완성지향 간에 $r=.688$, 경제적 안정과 자기완성 지향 간에는 $r=.515$, 경제적 안정과 자율적 삶 간에 $r=.570$, 경제적 안정과 적극적 인생 참여 간에 $r=.223$, 심리적 지지와 자기완성지향 간에 심리적 지지와 적극적 인생참여 간에 $r=.450$, 적극적 활동과 자기완성 지향 간에 $r=.279$, 적극적 활동과 자율적 삶 간에 $r=.262$, 적극적 활동과 적극적 인생참여 간에 $r=.392$, 적극적 활동과 자녀만족 간에 $r=.261$, 부부관계만족과 자기완성 지향 간에 $r=.529$, 부부관계만족과 자율적 삶 간에 $r=.587$, 부부관계 만족과 적극적 인생 참여 간에 $r=.514$, 부부관계 만족과 자녀만족 간에 $r=.401$, 부부관계만족과 자기수용 간에 $r=.135$, 가족 지지와 자기수용 간에 $r=.224$ 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가족지지와 타인수용 간에는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서적인 보상 관계에 더 많이 할애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타인과의 접촉빈도를 감소시킨다는 Carstensen[2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한국 노인들이 지각하는 성공적 노후 요인들은 기존의 척도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임으로써 노인들의 성공적 노후의 공인타당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5. 성공적 노후 척도와 김등배(2008)간의 공인타당도 검증

	자율 적합	자기완 성지향	적극적 인생참여	자녀에 대한 만족	자기 수용	타인 수용
일상 삶의 순조로움	-.012	.016	.031	.111	-.062	.009
자녀성공	.688 (**)	.011	-.008	.057	-.026	.058
경제적 안정	.515 (**)	.570 (**)	.223 (*)	.129	.194	.030
심리적 지지	.629 (**)	.476 (**)	.450 (**)	.060	.042	.060
적극적 활동	.279 (**)	.262 (**)	.392 (**)	.261 (**)	-.073	-.083
부부관계 만족	.529 (**)	.587 (**)	.514 (**)	.401 (**)	.135 (**)	.003
가족 지지	.086	.004	.067	.079	.224 (**)	.047

**p<.001

7. 성공적 노후 척도에 대한 성별, 연령, 학력에 따른 차이

한국 노인들의 성공적 노후 척도에 대한 원형 요인들은 성별, 연령, 학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7.1 성별에 따른 차이

성별에 따른 성공적 노후 척도 하위척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단일표본 t 검정을 수행하였다. 한국 노인들의 성공적 노후 척도 하위요인별 평균, 표준편차 및 통계 값은 [표 6]과 같다. 399명의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성공적 노후 척도 하위요인 간의 차이를 평가한 결과, 성별에 따른 성공적 노후 척도 하위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6. 성별에 따른 차이

요인	성별	N	M	표준 편차	t	유의 수준
일상적 삶의 순조로움	남	158	40.35	4.112	-1.293	.364
	여	241	40.90	4.160		
자녀성공	남	158	36.70	3.545	-.831	.355
	여	241	37.00	3.466		
경제적 안정	남	158	29.62	3.969	-.127	.780
	여	241	29.67	4.031		
심리적 지지	남	158	34.32	3.849	-1.774	.112
	여	241	34.99	3.629		

저극적 활동	남	158	23.83	3.548	-.367	.992
	여	241	23.96	3.560		
부부관계 만족	남	158	22.55	2.840	-1.837	.166
	여	241	21.99	3.090		
가족 지지	남	158	12.89	2.626	-.0677	.321
	여	241	13.08	2.729		

***p<.001

7.2 연령에 따른 차이

연령에 따른 성공적 노후 척도 하위 요인과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 분산 분석(One way ANOVA)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한국노인들의 성공적 노후 척도 하위요인과 자기 효능감 하위 요인(F=9.420,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을수록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능력 및 기술들을 적절하게 조직화하고 동원하는 역량에 대한 융통성이 발휘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7. 연령에 따른 성공적 노후 지각 차이

요인	연령	N	M	표준 편차	t/f	유의 수준	사후 검증
일상적 삶의 순조로움	65~ 69	213	40.91	4.390	2.145	.118	
	70~ 74	133	40.61	3.817			
	75 이상	55	39.60	4.219			
자녀 성공	65~ 69	213	36.90	3.656	.164	.849	
	70~ 74	33	36.80	3.658			
	75 이상	213	29.68	4.149			
경제적 안정	65~ 69	213	29.68	4.149	.032	.968	
	70~ 74	133	29.66	3.888			
	75 이상	55	29.53	3.795			
심리적 지지	65~ 69a	213	35.28	3.463	9.420	.000	a(b)
	70~ 74a	133	34.45	3.943			
	75 이상b	55	32.90	3.883			
적극적 활동	65~ 69	213	23.73	3.652	1.463	.233	
	70~ 74	133	24.33	3.406			
	75 이상	55	23.58	3.541			

부부 관계 만족	65~ 69	213	22.26	3.048	1.930	.147
	70~ 74	133	22.36	2.895		
	75 이상	55	21.45	3.114		
	65~ 69	213	12.85	2.724		
가족 지지	70~ 74	133	13.20	2.718	.685	.505
	75 이상	55	13.05	2.422		

7.3 학력에 따른 차이

학력에 따른 성공적 노후 척도 하위요인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일상적 삶의 순조로움(F=4.284, p<.001)과 경제적 안정(F=2.967, p<.05), 심리적 지지(F=5.885, p<.001), 부부관계만족(F=3.596, p<.01), 가족 지지(F=4.019, p<.001)는 유의수준 .05에서 학력에 따라 요인들의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공적 노후 지각 정도와 학력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일상적 삶의 순조로움은 초졸, 고졸, 대졸이상의 집단보다 초졸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안정은 초졸, 중졸, 고졸 집단 보다 대졸 집단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심리적 지지와 학력에 따른 차이를 분석 한 결과 초졸, 중졸, 고졸 집단 보다 대졸이상의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부부관계 만족과 학력에 따른 차이를 검증 한 결과 중졸, 고졸, 대졸 이상의 집단 보다 초졸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표 8. 학력에 따른 성공적 노후 지각 차이 분석

요인	학력	N	M	표준 편차	f	유의 확률	사후 검증
일상적 삶의 순조 로움	초졸a	25	41.56	5.852	4.284	.005	a)b>c
	중졸b	87	39.56	4.105			
	고졸c	121	40.30	4.160			
	대졸이상a	165	41.33	3.711			
자녀 성공	초졸	25	36.48	3.055	2.002	.113	
	중졸	87	36.17	4.061			
	고졸	121	36.75	3.447			
	대졸이상	25	29.00	3.175			
경제적 안정	초졸a	25	29.00	3.175	2.967	.032	a(b)
	중졸a	87	28.98	3.460			
	고졸a	121	29.42	4.154			
	대졸이상b	165	30.36	4.118			

심리적 지지	초졸a	25	34.72	2.638	5.885	.001	a(b)
	중졸a	87	33.42	4.048			
	고졸a	121	34.55	3.814			
	대졸이상b	165	35.46	3.515			
적극적 활동	초졸	25	25.32	3.436	1.579	.194	
	중졸	87	23.84	3.333			
	고졸	121	23.64	3.776			
부부 관계 만족	초졸a	25	21.08	2.856	3.596	.014	a(b)
	중졸a	87	21.66	3.135			
	고졸a	121	22.22	2.776			
	대졸이상b	165	22.67	2.916			
가족 지지	초졸a	25	13.52	2.518	4.019	.008	a(b)
	중졸a	87	13.46	3.083			
	고졸a	121	13.32	2.893			
	대졸이상b	165	12.47	2.196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크게 네 가지의 연구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 노인들의 성공적 개념의 원형적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둘째는 성공적 노후의 요인들은 내적으로 타당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고, 셋째는 성공적 노의 요인들은 외적으로 타당 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고 마지막으로 성공적 노후 지각정도는 성별, 연령, 학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7요인으로는 '일상적 삶의 순조로움', '자녀성공', '경제적 안정', '심리적 지지', '적극적 활동', '부부관계 만족', '가족 지지'의 7개의 하위요인에 47문항을 갖춘 노인들의 성공적 노후 척도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노인들의 성공적 노후 척도'는 한국노인과의 면담을 통해 구성된 것으로 노인 자신이 노년에 대해 느끼는 통합된 느낌과 생각을 도구 개발 문항에 반영하여 노인이 문항에 답할 때 좀 더 친숙하고 접근하기 쉽게 구성되었다고 생각한다.

먼저 성공적 노후 요인들은 내적으로 타당한가를 알아보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보면 일상적 삶의 순조로움은 자녀 성공(.688)과 경제적 안정(.515), 심리적 지지(.629), 부부관계 만족(.529)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자녀성공은 경제적 안정(.570) 및 심리적 지지(.476), 부부관계 만족(.587)과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안정은 심리적 지지(.450)와 부부관계 만족(.514)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적극적 활동은 부

부관계 만족(.401)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각각의 하위요인들이 독립된 요인으로 구분되는 동시에 서로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각 하위요인들의 점수를 통해 노인들의 성공적 노후척도 전체를 잘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발된 노인들의 성공적 노후 척도 47문항의 신뢰도를 측정 한 결과 내적 일치도(Cronbach's α)가 7요인 전체 모두 .632 ~ .888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에 사용되어 왔던 성공적 노후 척도들의 내적 일치도 보다도 높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각각의 하위요인들이 독립된 요인으로 구분되는 동시에 서로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각 하위요인을 통해 한국노인들의 성공적 노후 척도 전체를 잘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노인들의 성공적 노후의 요인들은 외적으로 타당항가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노인들의 성공적 노화 척도'를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한국노인들의 성공적 노후 척도' 점수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한국노인들의 성공적 노화 척도'는 노년기를 평가하는 가장 범용적인 척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성공적 노후의 개념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공인타당도 검증 척도를 선택하였다.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의 문항 수는 31문항으로 6개의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α 값이 .903이다. 그 결과 상관계수는 $r=.135 \sim r=.688$ 로 정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성공적 노후 척도가 한국노인들의 성공적 노후 및 각각의 하위요인들을 잘 측정해 주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국 노인들의 성공적 노후 지각 정도는 성별, 연령,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관계없이 노인들이 지각하고 있는 성공적 노후의 개념이 같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차이와 한국노인들의 성공적 노후 지각정도 하위요인의 파이를 분석 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을수록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능력 및 기술들을 적절하게 조직화 하고 동원하는 역량에 대한 융통성이 발휘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상적 삶의 순조로움은 중졸, 고졸, 대졸이상 집단보다 초졸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안정은 초졸, 중졸, 고졸집단보다 대졸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심리적 지지와 학력에 따른 차이를 분석 한 결과 초졸, 중졸, 고졸, 집단보다 대졸 이상의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부부관계 만족과 학력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초졸, 중졸, 고졸 집단보다 대졸이상의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지지와 학력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중졸, 고졸, 대졸이상의 집단보다 초졸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의와 함께 몇몇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선정된 표집 대상이 한국노인들을 대표하는 표본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치우치지 않는 표본 선정을 위해 무작위로 여러 도시와 여러 시설을 방문해 설문하였으나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만을 가지고 한국노인들을 대표하는 표본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차후 연구에서는 정확한 정보 획득을 위해서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대단위, 전국표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한국노인들의 성공적 노후를 충분히 설명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암시적인 접근 방법으로서의 특성을 살리고자 노인들이 생각하는 주관적 특성의 성공적 노후 문항 구성 및 선별과정에서 많은 항목들을 삭제되었다. 이는 문항수준에서의 타당성을 높이는 데는 기여를 하였으나 성공적 노후 요소를 설명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항목들이 제외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들만을 모집단으로 본 연구를 진행했으나 차후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중년기를 함께 연구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노인들의 성공적 노후 척도와외적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노인들의 성공적 노화 척도'를 사용하였지만, 최근 서구에서 이용된 척도를 이용하여 외적 타당도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에 대한 척도를 개발함에 있어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노년학 연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타당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한국 노인들의 성공적 노후에 대한 구체적인 도구로서 우리나라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올바르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이루어질 성공적 노후에 관한 연구에 대해 높은 타당도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백지은, 최혜경, “한국노인들이 기대하는 성공적 노화의 인식차이”, 한국가족학회지, 제23권, 제3호, pp.1-16, 2005.
- [2] 최혜경, “한국노인들이기대에 따른 성공적 노화: 개념 형성과 중재방안의 탐구”, 한국노년학, 제13권, 제3호, pp.145-168, 2008.
- [3] R. Schulz, and J. Heckhausen, “A life Span Model of Successful Aging,” American Psychologist, Vol.51, No.7, pp.702-714, 1996.
- [4] 안정신, 강인, 김윤정,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학회지, 제13권, 제4호, pp.225-245, 2009.
- [5] C. D. Ryff, In the eye of the beholder: Views of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Psychology and Aging, Vol.6, pp.286-295, 1989.
- [6] A. B. Ford, M. R. Haug, K. C. Stange, A. D. Gaines, L. S. Noelker, and P. K. Jones, “Sustained personal autonomy: A measure of successful aging. Journal of Aging and Health,” Vol.12, No.4, pp.470-489, 2000.
- [8] P. B. Baltes and M. M. Baltes, “Successful aging-perspective form the behavioral sciences,” Cambridge, United Kingd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9] J. W. Rowe and R. L. Kahn,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Vol.37, No.4, pp.433-440, 1997.
- [10] 김동배,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0권, 제1호, pp.211-231, 2008.
- [11] 조혜경,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 - 노인들의 성인 학습을 통하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 [12] 김경호, 김지훈, “삶의 만족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 유배우자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 복지학, 제13권, 제2호, pp.87-106, 2009.
- [13] 박선영, 흥현방, 2005.
- [14] 김경연, 정여진, “건강 및 경제수준에 따른 집단별 성공적노화의 요소 탐색”, 노인복지연구, 제34권, pp.31-54, 2006.
- [15] 김재중,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백석대학교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 [16] 김미령,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한국노년학, 제28권, 제1호, pp.33-48, 2008.
- [17] 송혜자, “노인의 역할 수행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SOC 대체전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 [18] 윤영애, “성공적인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19] 주용국, ‘노인다움’ 노화지원을 위한 상담·교육모형의 개발, 상담학 연구, 제10권, 제1호, pp.17-42, 2009.
- [20] 한수정, 문진숙, 문영숙, “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영향요인,” 성인간호학회지, 제21권, 제4호, pp.423-434, 2009.
- [21] 전은희,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경성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22] 최혜경, “한국노인들의 기대에 따른 성공적 노화: 개념형성과 중재 방안의 탐구”, 한국노년학, 제13권, 제3호, pp.145-168, 2008.
- [23] P. B. Baltes, M. M. Baltes, A. M. Freund, and F. R. Lang, “The measure of selection, optimization, and compensation (SOC) by

self-report. Berlin, Germany: Max Planck Institute for Human Development and Education. 1999.

- [24] 하정연, 오윤자,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선택, 적정화, 보상책략 관련 변인 연구: 중산층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1권, 제2호, pp.131-144, 2003.
- [25] 엄한주, "스포츠 심리학 연구법", 보경문화사, 1995.
- [26] 김미혜, 신경림,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5권, 제2호, pp.35-52, 2005.
- [27] 안정신, 강인, 김윤정, "한국 중노년 성인들의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3권, 제4호, pp.225-245, 2009.
- [28] L. L. Carstensen, "A life-span approach to social motivation. In J. Hrdkhsudrn & C. Dweck (Eds.)," *Motivation and across the life spa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송 선 희(Sun-Hee Song)

정회원



- 1990년 2월 : 고려대학교(문학사)
 - 1994년 2월 : 고려대학교(문학석사)
 - 1999년 2월 : 고려대학교(교육학박사)
 - 2005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교수
- <관심분야> : 교육심리, 노인심리, 노인교육

저 자 소 개

주 민 경(Min-Kyoung Joo)

정회원



- 2003년 2월 : 호서대학교(문학사)
- 2008년 2월 : 호서대학교 여성복지대학원(문학 석사)
- 2011년 9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노인복지학 박사과정.

<관심분야> : 노인복지, 교육학, 노인심리.